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6월 26일

ANDREW M. CUOMO 주지사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성명

오늘 있었던 법원의 판결은 LGBT 커뮤니티의 획기적인 시민권 승리이자 미국에서 완전한 결혼 평등을 이루고자하는 우리의 노력에서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뉴욕은 결혼 평등이 이뤄지는 가장 큰 규모의 주가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미국 전역에서 모든 시민은 성적 지향과 상관 없이 이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인식이 커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번 주를 기준으로 44년 전 스톤월 항쟁(Stonewall Riots) 때부터 뉴욕에서 결혼 평등(marriage equality)법이 통과되고 뉴욕 주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출발된 결혼수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을 뒤집는 오늘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우리 뉴욕주는 이러한 운동의 최전선에 있어왔습니다.

이와 같은 획기적인 오늘 판결로 우리나라가 발전되고 모든 미국인들이 이 법에 따라 같은 권리를 누리고 보호 받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